

#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양육행동과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

## Relations between Parents' Effortful Control,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Effortful Control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배윤진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조교수 · 연구위원 임지영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un Jin Ba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 CBA(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Research Associate : Ji Young Lim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udy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s' effortful control (EC), their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EC.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were 55 infants and their parents.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plied to questionnaires, including ECBQ-SF, ATQ-SF and Parenting style scale.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parents' EC, affectionate parenting style and infants' EC by zero-order correlation. We also performed Mann-Whitney test on the acquired data and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fants' EC by their parents' EC and parenting behavior. More specifically, infants with more affectionate and permissive parents showed higher levels of EC. Finally, we performed a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and its results revealed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parents' EC and the infants' EC decreased when the parenting style was controlled. These results are vital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developmental pathways to the EC.

**주제어(Key Words)** : 부모의 의도적 통제(parents' effortful control), 영아의 의도적 통제(infants' effortful control),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Ji Young L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1 Fax: +82-53-950-6209 E-mail: limj@knu.ac.kr

\* 본 논문은 2011년 대한가정학회 국제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I. 서론

자기 조절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비롯한 발달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조절'은 정서적 경험과 정서 표현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이는 자기 조절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정서와 관련된 조절 부분이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와 관련된 조절 능력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 조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자기 조절과 타 발달영역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EC)는 Ahadi, Rothbart와 Ye(1993)이 제안한 기질의 한 구성요소로, '하위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Rothbart & Bates, 1998) 또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과 하위 반응을 활성화하고, 계획하고, 실수를 발견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행 주의력의 효율성'(Rothbart & Bates, 2006)으로 정의된다. 또한 Eisenberg와 Spinrad(2004)에 따르면, 정서와 관련된 조절은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조절 능력을 포함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정서 조절이 의도적 통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의도적 통제는 기질의 한 요소로서 연구되기도 하고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율적인 조절 능력의 일환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를 기질의 한 요소이면서 자기 조절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여기고, Putnam, Gartstein과 Rothbart(2006), Rothbart, Ahadi와 Evans(2000)이 개발한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도적 통제의 기초는 약 1, 2세경에 출현하며(Eisenberg & Spinrad, 2004), 이후 2~3년 동안 급속도로 발달하다가 4세경에 이르면 지능과 같은 안정성을 보이게 되고, 이후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유지된다(Kochanska & Knaack, 2003). 특히 의도적 통제 중 영아기에 발달하는 주의 조절 능력은 이후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anska, Muray, & Halan,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가 출현하고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영아기에 의도적 통제와 부모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의도적 통제의 발달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영아에게 있어 직접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체는 바로 부모이므로 영아의 의도적 통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의도적 통제에 있어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거나 부

모와 자녀의 의도적 통제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기질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의 기질과 영유아의 기질을 다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기질과 영아의 기질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Yun, 2006),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충동적이고 감정억제가 잘 안될수록 유아의 까다로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oo & Park, 1991).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기질 간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기질의 한 요소인 의도적 통제 또한 자녀들의 의도적 통제와 부모의 의도적 통제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의도적 통제는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지표가 연령별로 조금씩 달라진다(Putnam et al., 2006; Rothbart et al., 2000). 성인기 즉, 부모의 의도적 통제는 억제 조절, 주의력 조절 및 활성화 조절로 구성되지만,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는 주의 집중, 주의 옮기기, 억제 조절, 강도 낮은 자극 선호 및 밀착성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영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며, 특히 영아의 의도적 통제는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도적 통제와 부모 양육행동 간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자녀의 욕구나 정서 표현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대화를 하는 유도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10).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반응성(Kochanska et al., 2000)과 부모의 따뜻함 및 긍정적인 표현(Eisenberg et al., 2003)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였으며, 어머니가 유아와의 관계에서 민감하고 비계설정을 잘하며 적대감을 적게 보이는 경우 유아가 의도적 통제를 더 잘하고(Moon, 2010),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Han, 2010) 부모가 강압적인 훈육을 행사할 때(Kochanska & Knaack, 2003) 아동은 의도적 통제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최근 들어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 혹은 정서적 반응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행해지고 있지만(Eisenberg et al., 2003; Han, 2010; Kochanska et al., 2000; Kochanska & Knaack, 2003; Moon, 2010), 양육행동과 부모의 의도적 통제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영아기는 의도적 통제가 발현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시기의 의도적 통제를 다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도적 통제를 결정하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

행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의도적 통제는 아동의 문제 행동 등 사회·정서 영역의 전반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나아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 의도적 통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모의 의도적 통제,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만을 살펴볼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의도적 통제를 살펴본 선행연구들(Han, 2010; Moon, 2010)에서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녀의 발달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Kim & Yu, 2011),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부모 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사이에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을 제외한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모의 의도적 통제,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부모의 의도적 통제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있는가?
-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있는가?
- 넷째,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도 및 D시에 거주하는 13~36개월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55명의 영아와 그들의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27.80개월( $SD = 6.36$ )이었으며, 아버지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55)

	Variables	Frequency(%)
Gender	Male	25(45.5)
	Female	30(54.5)
Age group	1 years old	16(29.1)
	2 years old	39(70.9)
Birth order	Firstborn	29(52.7)
	Second	22(40.0)
	Third	4(7.3)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10(18.2)
	College	38(69.1)
	Graduate School	7(12.7)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10(18.2)
	College	45(81.8)
	Graduate School	0(0)
Household Income	Below 2,000,000 won	3(5.5)
	2,000,000~6,000,000 won	38(69.1)
	Over 6,000,000 won	13(23.6)
	Missing	1(1.8)

평균 연령은 38세( $SD = 3.27$ ),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53세( $SD = 3.47$ )이었다. 영아들 중 여아는 30명(54.5%), 남아는 25명(45.5%)이었으며, 만1세는 16명(29.1%), 만2세는 39명(70.9%)이었고, 출생순위는 첫째(52.7%), 둘째(40.0%), 셋째(7.3%)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은 대부분 대졸(부 = 69.1%, 모 = 81.8%)이었으며,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은 200~600만원 69.1%, 600만원 초과 23.6%, 200만원 미만 5.5%, 그리고 무응답 1.8% 순으로 나타났다.

### 2. 측정 도구

#### 1) 영아의 의도적 통제

영아의 의도적 통제는 걸음마기 영아들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ECBQ-SF; Putnam et al., 2006)을 번안하여 그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3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의도적 통제는 주의 집중(6문항), 주의 옮기기(8문항), 억제 조절(6문항), 강도 낮은 자극 선호(6문항), 밀착성(6문항)으로 이루어지며,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점수를 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의 전체점수뿐만 아니라 각 하위 요인의 점수들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Putnam 외(2006)의 연구에서 영아가 30개월일 때 하위 척도들의 Cronbach  $\alpha$ 는 주의 집중 .90, 주의 옮기기 .75, 억제 조절 .89, 강도 낮은 자극 선

호 .67, 밀착성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의도적 통제

부모의 의도적 통제는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Short Form(ATQ-SF; Rothbart et al., 2000)를 Choi(2008)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전체 질문지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1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주의 조절, 억제 조절 및 활성화 조절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점수를 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각각의 의도적 통제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동일한 질문지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여 부모 각각의 총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Rothbart 외(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응답하였을 때 Cronbach  $\alpha$  = .82, 어머니가 응답하였을 때 Cronbach  $\alpha$  = .70으로 나타났다.

3)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Bae(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양육행동 점수는 애정-거부 및 통제-허용으로 나누어진다. 애정-거부 차원에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통제-허용 차원에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Bae(2001)의 연구에서 애정-거부 차원은 Cronbach  $\alpha$  = .92, 통제-허용 차원은 Cronbach  $\alpha$  = .93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 애정-거부 차원은 Cronbach  $\alpha$  = .92, 통제-허용 차원은 Cronbach  $\alpha$  = .90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 애정-거부 차원은 Cronbach  $\alpha$  = .85, 통제-허용 차원은 Cronbach  $\alpha$  = .75로 각각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 동안 K도 및 D시에 거주하는 영아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들의 부모가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지역 센터나 어린이집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부모들에게 배부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중 대상 연령에서 벗어나거나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5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맨휘트니(Mann-Whitney) *U* 검증, 크루스칼-월리스(Kruskal-Wallis) 검증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의도적 통제,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과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에 따른 영아의 의도적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맨휘트니 *U* 검증을 사용하였다. 차이 검증을 위해 비모수 통계를 사용한 이유는 표본 수가 적어 모수 통계를 위한 가정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Ⅲ.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 및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월령, 소득수준 그리고 부모의 학력과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월령( $r = .22, ns$ )과 영아의 의도적 통제 사이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fant-EC (N = 55)

	I-EC	Attention focusing	Attention shifting	Inhibitory control	Low-intensity control	Cuddliness
I-age	.22	.20	.19	.16	.05	.25
F-education	.15	.30*	.04	.13	.15	-.03
M-education	.24	.43**	.10	.13	.20	.09
Income	.13	.27*	.22	-.17	.05	.15

Note. I = Infant, M = Mother, F = Father

\* $p < .05$ , \*\* $p < .01$

Table 3.  
Mann-Whitney test of infant's gender, age group, and EC (N = 55)

Infant-EC	Gender	n	Mean ranking	Total ranking	Age group	n	Mean ranking	Total ranking	
Attention focusing	Male	25	27.52	688.00	1	16	23.78	380.50	
	Female	30	28.40	852.00	2	39	29.73	1159.50	
		U = 363.00				U = 244.50			
Attention shifting	Male	25	28.54	713.50	1	16	23.72	379.50	
	Female	30	27.55	826.50	2	39	29.76	1160.50	
		U = 361.50				U = 243.50			
Inhibitory control	Male	25	29.32	733.00	1	16	23.78	380.50	
	Female	30	26.90	807.00	2	39	29.73	1159.50	
		U = 342.00				U = 244.50			
Low-intensity pleasure	Male	25	24.02	600.50	1	16	30.53	488.50	
	Female	30	31.32	939.50	2	39	26.96	1051.50	
		U = 275.50				U = 271.50			
Cuddliness	Male	25	25.36	634.00	1	16	21.06	337.00	
	Female	30	30.20	906.00	2	39	30.85	1203.00	
		U = 309.00				U = 201.00*			

Note. Mean ranking and Total raking mean inputted data's ranking value.

\*p < .05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의도적 통제 하위 요인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였다. 반면, 영아의 의도적 통제 하위 요인 중 주의 집중은 소득수준( $r = .27, p < .05$ ), 어머니 학력( $r = .43, p < .01$ ), 그리고 아버지 학력( $r = .30, p < .05$ )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즉, 소득수준이 높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아가 주의 집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U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U = 347.50, ns$ ), 하위 요인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1세와 만2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U = 247.50, ns$ ), 하위 요인 중 밀착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U = 201.00, p < .05$ ). 즉, 만1세보다는 만2세에 밀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순위에 따른 의도적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크루스칼-윌리스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영아의 의도적 통제의 전체 점수( $\chi^2 = .72, ns$ )와 하위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양육행동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는 아버지의 학력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8, p < .05$ ). 또한 아버지( $r = .27,$

Table 4.  
Kruskal-Wallis test of infant's birth order and EC (N = 55)

Infant-EC	Birth order	n	Mean ranking	$\chi^2$
Attention focusing	Firstborn	29	25.16	2.93
	Second	22	32.50	
	Third	4	23.88	
Attention shifting	Firstborn	29	27.93	.05
	Second	22	27.77	
	Third	4	29.75	
Inhibitory control	Firstborn	29	28.38	.77
	Second	22	26.43	
	Third	4	33.88	
Low-intensity pleasure	Firstborn	29	27.47	1.15
	Second	22	27.20	
	Third	4	36.25	
Cuddliness	Firstborn	29	25.43	1.76
	Second	22	30.32	
	Third	4	33.88	

Note. Mean ranking means inputted data's ranking value.

$p < .05$ )와 어머니( $r = .36, p < .01$ )의 애정거부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연령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통제허용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학력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r = -.33, p < .05$ )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의도적 통제,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

부모의 의도적 통제,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

**Table 5.**  
Zero-order correlation among parent-EC, parenting,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55)

	F-EC	M-EC	F-Affection (rejection)	F-Control (permission)	M-Affection (rejection)	M-Control (permission)
F-Age	.12	.10	.16	-.21	.11	.02
M-Age	.15	.10	.27*	-.06	.36**	.15
F-education	.19	.28*	-.13	-.33*	-.12	-.23
M-education	.14	.21	.09	-.16	.13	.07
Income	.11	.04	.14	.12	.10	-.05

Note. M = Mother, F = Father  
\* $p < .05$ , \*\* $p < .01$

**Table 6.**  
Zero-order correlation among mother-EC, mother-parenting, and infant-EC (N = 55)

	M-EC	M-Affection (rejection)	M-Control (permission)	I-EC
M-EC	1			
M-Affection (rejection)	.28*	1		
M-Control (permission)	-.20	-.27*	1	
I-EC	.38**	.45**	-.21	1

Note. I = Infant, M = Mother, F = Father  
Note. Affectionate(rejective) parenting: The higher the score, more affectionate behavior, and the lower the score, more rejective behavior.  
Note. Controlled(permissive) parenting: The higher the score, the more controlled behavior, and the lower the score, the more permissive behavior.  
\* $p < .05$ , \*\* $p < .01$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에 애정적 양육행동( $r = .28, p < .05$ )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 $r = .38, p < .01$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영아의 의도적 통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45, p < .01$ ). 즉,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자녀의 의도적 통제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영아는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였다.

Table 7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또한 애정적 양육행동( $r = .41, p < .01$ )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 $r = .34, p < .05$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는 애정거부( $r = .46, p < .001$ )와 통제허용( $r = -.31, p < .05$ ) 모두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영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 또한

**Table 7.**  
Zero-order correlation among father-EC, father-parenting, and infant-EC (N = 55)

	F-EC	F-Affection (rejection)	F-Control (permission)	I-EC
F-EC	1			
F-Affection (rejection)	.41**	1		
F-Control (permission)	-.17	-.22	1	
I-EC	.34*	.46***	-.31*	1

Note. I = Infant, M = Mother, F = Father  
Note. Affectionate(rejective) parenting: The higher the score, more affectionate behavior, and the lower the score, more rejective behavior.  
Note. Controlled(permissive) parenting: The higher the score, the more controlled behavior, and the lower the score, the more permissive behavior.  
\* $p < .05$ , \*\* $p < .01$ , \*\*\* $p < .001$

높았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허용적일수록 영아는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의도적 통제,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의도적 통제는 애정적인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상관이 있었으며,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 또한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의도적 통제에 따른 영아의 의도적 통제 차이**

부모의 의도적 통제에 따른 영아의 의도적 통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맨히트니 U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를 상하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부모 의도적 통제 점수의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하고 빼 값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 집단으로 나누

Table 8.  
Mann-Whitney test of mother-EC, father-EC, and infant-EC

I-EC	M-EC	<i>n</i>	Mean ranking	Total ranking	F-EC	<i>n</i>	Mean ranking	Total ranking	
Attention focusing	Low	10	7.20	72.00	Low	5	3.80	19.00	
	High	9	13.11	118.00	High	6	7.83	47.00	
<i>U</i> = 17.00*					<i>U</i> = 4.00*				
Attention shifting	Low	10	6.25	62.50	Low	5	3.90	19.50	
	High	9	14.17	127.50	High	6	7.75	46.50	
<i>U</i> = 7.50**					<i>U</i> = 4.50				
Inhibitory control	Low	10	6.75	67.50	Low	5	4.60	23.00	
	High	9	13.61	122.50	High	6	7.17	43.00	
<i>U</i> = 12.50*					<i>U</i> = 8.00				
Low -intensity pleasure	Low	10	8.10	81.00	Low	5	5.70	28.50	
	High	9	12.11	109.00	High	6	6.25	37.50	
<i>U</i> = 26.00					<i>U</i> = 13.50				
Cuddliness	Low	10	8.80	88.00	Low	5	4.10	20.50	
	High	9	11.33	102.00	High	6	7.58	45.50	
<i>U</i> = 33.00					<i>U</i> = 5.50				

Note. I = Infant, M = Mother, F = Father

Note. Mean ranking and Total raking mean inputted data's ranking value.

\**p* < .05, \*\**p* < .01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상집단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을 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에 따라 의도적 통제의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U* = 12.00, *p* < .01),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U* = 6.00, *ns*). 또한 하위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 의도적 통제에 따라 영아의 주의 집중(*U* = 17.00, *p* < .05), 주의 옮기기(*U* = 7.50, *p* < .01), 그리고 억제 조절(*U* = 12.50, *p* < .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영아는 주의 집중, 주의 옮기기, 그리고 억제 조절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 의도적 통제에 따라서는 주의 집중(*U* = 4.00, *p* < .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영아는 주의 집중에서만 높은 수준을 보였다.

#### 4.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영아의 의도적 통제 차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U*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부모 양육행동 점수의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하고 빼 값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 집단으로 나누는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을 애정적 혹은 통제적 집단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을 거부적 혹은 허용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어머니(*U* = 15.00, *p* < .01)와 아버지(*U* = .00, *p* < .01)의 애정거부 양육행동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U* = 27.50, *ns*)와 아버지(*U* = 25.50, *ns*)의 통제허용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영아의 의도적 통제의 하위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Table 10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애정거부 유형에 따라 영아의 주의 집중(*U* = 18.50, *p* < .05), 주의 옮기기(*U* = 11.00, *p* < .01), 및 강도 낮은 자극 선호(*U* = 19.00,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통제허용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강도 낮은 자극 선호(*U* = 17.00,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애정거부 양육행동에 따라 영아는 주의 집중(*U* = 2.50, *p* < .01), 주의 옮기기(*U* = .00, *p* < .01), 억제 조절(*U* = 7.00, *p* < .05), 그리고 밀착성(*U* = .00,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의 통제허용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주의 집중(*U* = 17.00, *p* < .05)과 강도 낮은 자극 선호(*U* = 17.00,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영아는 주의 집중, 주의 옮기기, 및 강도 낮은 자극 선호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영아는 강도 낮은 자극 선호에서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영아는 주의 집중, 주의 옮기기, 억제 조절, 그리고 밀착성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아

Table 9.  
Mann-Whitney test of parent's affectionate(rejective)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EC

I-EC	M -parenting	n	Mean ranking	Total ranking	F -parenting	n	Mean ranking	Total ranking	
Attention focusing	Rejection	11	7.68	84.50	Rejection	7	4.36	30.50	
	Affection	9	13.94	125.50	Affection	7	10.64	74.50	
<i>U</i> = 18.50*					<i>U</i> = 2.50**				
Attention shifting	Rejection	11	7.00	77.00	Rejection	7	4.00	28.00	
	Affection	9	14.78	133.00	Affection	7	11.00	77.00	
<i>U</i> = 11.00**					<i>U</i> = .00**				
Inhibitory control	Rejection	11	8.32	91.50	Rejection	7	5.00	35.00	
	Affection	9	13.17	118.50	Affection	7	10.00	70.00	
<i>U</i> = 25.50					<i>U</i> = 7.00*				
Low -intensity pleasure	Rejection	11	7.73	85.00	Rejection	7	5.57	39.00	
	Affection	9	13.89	125.00	Affection	7	9.43	66.00	
<i>U</i> = 19.00*					<i>U</i> = 11.00				
Cuddliness	Rejection	11	8.18	90.00	Rejection	7	4.00	28.00	
	Affection	9	13.33	120.00	Affection	7	11.00	77.00	
<i>U</i> = 24.00					<i>U</i> = .00**				

Note. I = Infant, M = Mother, F = Father

Note. Mean ranking and Total raking mean inputted data's ranking value.

\**p* < .05, \*\**p* < .01

Table 10.  
Mann-Whitney test of parent's controlled(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EC

I-EC	M -parenting	n	Mean ranking	Total ranking	F -parenting	n	Mean ranking	Total ranking	
Attention focusing	permission	10	11.25	112.50	permission	10	13.80	138.00	
	control	9	8.61	77.50	control	10	7.20	72.00	
<i>U</i> = 32.50					<i>U</i> = 17.00*				
Attention shifting	permission	10	10.40	104.00	permission	10	11.25	112.50	
	control	9	9.56	86.00	control	10	9.75	97.50	
<i>U</i> = 41.00					<i>U</i> = 42.50				
Inhibitory control	permission	10	10.80	108.00	permission	10	12.20	122.00	
	control	9	9.11	82.00	control	10	8.80	88.00	
<i>U</i> = 37.00					<i>U</i> = 33.00				
Low -intensity pleasure	permission	10	12.80	128.00	permission	10	13.80	138.00	
	control	9	6.89	62.00	control	10	7.20	72.00	
<i>U</i> = 17.00*					<i>U</i> = 42.00				
Cuddliness	permission	10	11.40	114.00	permission	10	11.30	113.00	
	control	9	8.44	76.00	control	10	9.70	97.00	
<i>U</i> = 31.00					<i>U</i> = 17.00*				

Note. I = Infant, M = Mother, F = Father

Note. Mean ranking and Total raking mean inputted data's ranking value.

\**p* < .05

버지가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영아는 주의 집중과 강도 낮은 자극 선호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5. 부모의 양육행동 통제 후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  
양육행동을 통제된 후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

적 통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부모의 애정거부 양육행동 및 아버지의 통제허용 양육행동을 통제 한 후,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경우 애정거부 양육행동 점수를 통제 시 어머니 의도적 통제와 영아 의도적 통제 간의 상관계수(*r* = .38 → .30)가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Table 11.  
Partial correlation between parent-EC and infant-EC (N = 55)

	Infant-EC
Mother-EC	.30*
Father-EC	.19

\* $p < .05$

Table 12.  
Partial correlation between father-EC and infant-EC (N = 55)

	Infant-EC
Father-EC	.31*

\* $p < .05$

두 양육행동 유형 각각을 통제한 후 아버지 의도적 통제와 영아 의도적 통제 간의 편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11 과 Table 12에서 볼 수 있듯이, 애정거부 양육행동 점수를 통제했을 때는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고 나타났으며 ( $r = .41 \rightarrow .19$ ), 통제허용 양육행동 점수를 통제했을 때는 상관계수가 줄어들었다( $r = .34 \rightarrow .31$ ).

즉, 양육행동을 통제한 후에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련성이 줄어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상관에 있어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상관에 있어서는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의도적 통제, 양육행동, 그리고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3~36개월 영아와 그들의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전반적인 의도적 통제 수준은 애정적인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애정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 역시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관련이 있었다. 즉,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부모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영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 및 아동의 의도적 통제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Valiente, Lemery-Chalfant와 Reiser(200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영아 기질 및 어머니 기질과 부모효능감과 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Yun과 Hyun(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부모의 기질적 특성 및 양육과 관련된 특성들 그리고 자녀의 기질적 특성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부모의 의도적 통제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 때 영아의 의도적 통제 또한 높은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에 따라서는 영아의 주의 집중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에 따라서는 의도적 통제 전체에서, 그리고 영아의 주의 집중, 주의 옮기기, 및 억제 조절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하위 영역 중 밀착성과 낮은 강도 자극 선호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성인의 의도적 통제 하위 요인과 영아의 하위 요인이 다르며 밀착성과 낮은 강도 자극 선호는 성인의 기질 척도에는 속하지 않는 요인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비록 부모의 의도적 통제를 다룬 선행연구가 소수에 불과하여 이러한 결과를 지지할만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어머니의 정서 표현과 아동의 자기 조절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Eiseng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Kim & Yu, 2011; Lim, 2006) 그리고 어머니 기질과 자녀 기질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Jang, 2011; Yoo & Park, 1991; Yun, 2006; Yun & Hyun, 2007)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부모가 자신의 정서 표현을 잘 조절할수록 자녀가 높은 수준의 자기 조절 능력을 보이고 부모의 기질 특성이 자녀의 기질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듯이,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인다.

한편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에 따른 영아의 의도적 통제 차이가 더 적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Lee와 Choi(200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특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 조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Kim과 Yu(201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특성 모두 유아의 행동적 자기 조절 및 정서적 자기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특성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얻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여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관해 살펴보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영아의 의도적 통제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의도적 통제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민감한 양육이 18개월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Spinrad, Eisenberg와 Gartner(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통제적인 양육에 있어서는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거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강압적인 처벌을 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저해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Garstein & Fagot, 2003; Kochanska & Knack, 2003)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제적이지 않은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오히려 의도적 통제의 몇몇 하위 요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는 스스로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자기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보여주는 셈이 되어 아동의 자기 조절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Power, 2000, quoted in Chang, 2010).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통해 의도적 통제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영아가 타고난 기질에 의해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가졌다 해도 적절한 양육행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키는 양육행동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의도적 통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도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 영역의 긍정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한 후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편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행동을 통제 하였을 때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사이의 관련성이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양육행동이 부모와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매개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이것은 국외의 몇몇 선행연구 결과(Valiente et al., 2007)와 유사하다. Valiente 외(2007)에 따르면, 부모의 의도적 통제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과 낮은 수준의 부정적 반응은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였으며, 자녀의 의도적 통제는 문제 행동과 부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의도적 통제가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육행동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전체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질과 양육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므로 종단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들의 관계와 발달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 및 영아의 의도적 통제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특성에 따라 자녀들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과 관련이 있는 부모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모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혹은 부모가 애정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가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인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수가 비교적 적고,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는 방법에 질문지법 외에 실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응답하는 질문지법만 그들의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였으며, 종단적 설계로 발달 양상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에 따라 상, 하 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부모 의도적 통제를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없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도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서 영아의 의도적 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부모 변인들을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의도적 통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의도적 통제가 출현하는 영아기를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영아의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키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므로 자기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References

-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M. (1993). Child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n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 359-378.
- Bae, K. J. (2001). Effects of individu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on preschoolers' theory-of-mi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Chang, H. I. (2010). The self-regulative temperament of effortful control: A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3*(3), 19-35.
- Choi, H. A. (2008). The affects of the toddlers' and mothers' temperaments on parenting stress

- lev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Eisenberg, N., Hofer, C., & Vaughan, J. (2007). Effortful control and its socioemotional consequence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287-306). New York: Guilford.
- Eisenberg, N., & Spinrad, T. (2004). Emotion-regu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2), 334-339.
- Eisenberg, N., Zhou, Q., Losoya, S. H., Fabes, R. A., Shepard, S. A., Murphy, B. C., et al. (2003). The relations of parenting, effortful control, and ego control to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ity. *Child Development, 74*(3), 875-895.
- Garstein, M. A., & Fagot, B. I. (2003). Parental depression, parenting and family adjustm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Explaining externalizing behaviors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43-177.
- Han, Y. S. (2010).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on children's aggression: mediating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C. Y. (2011). The effects of mother's temperament, infant experiences, and nursing attitude on temperament and emotion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J., & Yu, Y. O. (2011).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ccording to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type and their gender. *Child Education, 20*(1), 95-111.
- Kochanska, G., & Kn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 Kochanska, G., Murray, K.,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 Lee, H. R., & Choi, B. G. (2005).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individual and parents' characteristics and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5), 1-14.
- Lim, M. O.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acceptance attitudes of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Moon, Y. K. (2010). The Effects of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on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3), 386-401.
- Rothbart, M. K., Ahadi, S. A., & Evans D. E. (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22-135.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Series Ed.) and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personality development (pp. 105-17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Wiley.
- Spinrad, T., Eisenberg, N., & Gartner, B. (2007). Measure of effortful regulation for young childre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 606-626.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2), 249-267.

Yoo, M. H., & Park, S. Y. (1991). Maternal perception and reactions to infant' crying as a function of easy-difficult infant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2(2), 173-191.

Yun, H. J.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ant temperament, mother temperament and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n

Yun, H. J., & Hyun, O. K.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ant temperament, mother temperament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2), 1-17.

---

접 수 일 : 2011년 4월 15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월 6일